

3/8/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3(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하는 아: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2 장 1-11 절

- (요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요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 (요 2: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절관주** 눅 11:6
- (요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절관주** 요 19:26
- (요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 (요 2: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절관주** 막 7:3
-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절관주** 요 4:46
- (요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요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절관주** 요 1:14

사순절 3 주째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이 걸어 가신 길의 자취도 더듬어 보고 또 그 가신 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알아보려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40 일 금식을 하셨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 하시면서 보이신 첫 표적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요단강 광야 주변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왕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잠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히어 죽게 된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 14: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마 14: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 14: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 14: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마 14: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 14: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마 14: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마 14: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마 14: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당시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헤롯 왕의 아들로써 베뢰아 지역의 분봉 왕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안디바스 헤롯 왕은 온갖 불의를 저질렀던 왕인데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불의하고 부도덕함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책망했고 이에 헤롯 왕은 분개하여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생일을 맞은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초청자들과 흥겹게 즐기는 과정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살로메의 춤으로 흥이 난 헤롯 왕은 살로메에게 소원을 물어 보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공언을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딸 살로메를 사주합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는 잔인한 소원을 말합니다.

헤롯 왕은 평소에 백성들의 신망 받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으나 자신이 한 공연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사악한 모녀의 청을 들어 줍니다.

(막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머물렀던 요단강 근처가 더 이상 안전 지대가 아님을 아시고 북쪽 갈릴리 바닷가로 올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신 것입니다.

(요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요 2: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걱정을 하고 또 그 신랑집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혼인 잔치를 벌인 신랑집은 예수님의 가족과 아주 가까운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어머니가 호소했을 때 냉담하기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1. 우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신랑집과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에 잔치 음식을 총괄하는 책임을 부탁받았거나 자진해서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닥치자 당황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맏아들 예수였을 것입니다.

맏아들 예수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긴 했지만 남편 요셉과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사가 나타나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한 말을 한시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삼십 세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친척이자 세인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시작한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요즈음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큰 아들 예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신뢰는 우리 모두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 예수가 분명히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큰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이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를 잉태했을 때부터 삼십여 년 동안 혼자 마음속에 품고 믿어 온 바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저도 아니면 그동안 남모르게 쌓였던 아픔과 한을 보란듯이 씻어버리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은근히 던진 것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대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지만 나쁜 일도 아니고 게다가 어머니가 부탁하는 일인데 그렇게 차갑게 대답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 혈육의 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보라. 네 어머니라”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요 19:25-27).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제부터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사사로운 가족 관계에 매이기보다는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이루는 큰 일 밑에 놓여야 함을 밝히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응하는 일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는 어머니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어머니의 생각,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져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혼

인 잔치에서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당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야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그의 어머니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능력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못박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또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마 12: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 12: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 12: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 12: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혈육상의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분명한 마당에 “이제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하신 것입니다.

비록 공생애는 시작하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결정적인 때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재림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임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그런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상 당신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을 그때 였습니다.

(요 12:27-28)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지니신 능력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따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때를 따라 사용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3.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는 실제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집 주인과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킨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원한 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큰 수치를 당하게 된 혼인 잔치집과 그 신랑과 또 음식 감독의 책임을 맡았다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어머니를 돕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신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를 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읽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을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행하신 것입니다.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요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지시를 따른 하인들만 알고 연회장이나 신랑조차도 알 수 없게 은밀히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훗날 초막절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유대로 올라가자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하시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일이 있습니다(요 7:8-10).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아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어서 그 놀라운 표적을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 2: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은 결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뒤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말과 함께 그 뜻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거기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단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신 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데는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곤경에 처한 이들을 구해주려는 뜻뿐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보다 더 확신을 주시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